재난약자를 위한 정보매체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구 효 정*, 주 성 빈**

요 약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양극화, 국제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이들이 재난에도 취약한데 흔히, '재난약자'라고 불린다. 재난약자들은 재난 발생시에 일반인과 달리 재난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자력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최근에 재난약자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는 그들에 대한 재난에 대한 이해나 대처방법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한국인의 시각과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게 되고, 결국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관련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난정보에 대한 인식과 획득경로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빈번하게 접하는 정보매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A Study on the Efficient Utilizing of Information Media for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 Focused on Foreigners Workers in South Korea

Gu, Hyo Jeong*, Joo, Seong Bhin**

ABSTRACT

Korea is increasingly vulnerable to disasters due to changes in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In particular, there are a number of disadvantaged people, such as elderly people, disabled people, basic livelihood recipients, foreigners, multicultural families, etc. who are vulnerable to social problems due to aging, polar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These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have difficulties in acquiring disaster information and to respond promptly by self-help. Of course, recent studies on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but discussions about foreigners have been relatively inadequate. This has led to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actual situation of disaster and coping methods. Once general situations set in, foreigners staying in Korea will suffer from a vicious cycle of policy-making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and difficulties in obtaining relevant information. In this study,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on the recognition and acquisition path of disaster information for foreign workers living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we derived implications for practical information, such as ways to understand and actively utilize information media frequently visited by foreign workers in Korea.

Key Words: Disaster Safety,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Foreigners Workers, Disaster and Safety Service, Media

접수일(2018년 11월 30일), 수정일(1차: 2018년 12월 17일), 게재확정일(2018년 12월 30일)

*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주저자)
**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교신저자)

1. 문제의 제기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 2017년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하비(Hurricane Harvey) 등 전 세계적으로 대형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화재 등 사회적 재난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각종 재난의 위험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재난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재난약자 지원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1].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성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재난 취약 계층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재난 대응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수나 폭염, 지진 등 어느 재난이든 간에 재난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이다. 이들을 다양한 용어로 불리어지고 있지만 대체로 재난약자라고 정의되고 있고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자들을 일컫고 있다. 이러한 재난약자들은 재난발생 시에 일반인과 달리 재난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적 부자유 등으로 자력으로 신속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2].

특히, 해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3년과 2017년 사이에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38% 증가하는 등, 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광역시 여성가족부의 전국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의 시·도에서 부산의 외국인 주민수는 전국 6위로, 적지 않은 수의 외국인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체류 목적을 살펴보면 취업이 1위로 30.8%이고, 유학이 22.7%, 결혼이민이 14.3% 순으로 나타났다[3].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재난안전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4], 이 논문에서는 부산 체류 외국인 중에서도 가장 비율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연구의 인적범위로 설정하여 재난 시, 정보매체의 활용실태와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재난 시, 주로 활용하는 정보매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한국인의 시각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재난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체별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재난 발생 시, 위급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문헌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문헌조사와 논문, 인터넷 검색 자료, 언론보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재난약자의 의의와 유형, 정보매체의 의의 등 관련 문헌을 통해 확인하였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외국인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재 국내 정보매체를 활용한 재난안전서비스의 시행 여부, 문제점 등을 확인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재난약자의 의의

재난약자란 용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방재백서'를 롯한 각종 문헌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방재백서(1991)에 따르면, 재난약자는 '자신의 몸에 위험이 임박했을 때 그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 자신의 몸에 위험이 임박했을 때 그것을 감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람, 위험을 알리는 정보를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사람, 위험을 알리는 정보를 받을 수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5].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재난약자를 규정하는 개념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즉, 법령이나 조례에서도 재난약자에 대한 용어, 대상, 범위 등은

각기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별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재난취약계층 등 재난약자와 유사한 개념들이 사회복지 및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재난약자의 유형을 신체적, 환경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6][7].

<표 1> 재난약자의 유형

유형	내용
신체적 약자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 재난상황에서 대피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장애인, 노약자, 유아 및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은 신체에 이상이 있어 활동장애가 있는 사람이며, 고령자는 65세 이상으로서 활동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사람이고, 유아 및 청소년은 재난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는 13세 이하인 자
환경적 약자	국내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 및 생활환경,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자
경제적 약자	기본적인 안정된 생활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경제적 곤란 상황에 있는 자.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스스로 재난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고, 재난피해가 발생하면 복구에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자생적 복구가 어려운 특징을 보임

그러나 재난약자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보면, 재난약자를 의미하는 특징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먼저 재난약자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신체적 대응능력이 떨어진다. 둘째, 재난약자는 재난대응 및 복구에 일반인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이나 특수한 수단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약자는 재난상황에 대한 판단에 정신적·환경적 제한이 있다[8][9].

이와 같은 재난약자의 특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연구에서는 환경적 약자의 개념을 준용하여, 재난발생시 문화 및 생활환경,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올바른 상황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요구되는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정보매체의 의의

2.2.1. 개념

전통적인 관점에서 정보매체는 불특정대중에게 공적·간접적·일방적으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신문·TV·라디오·영화·잡지 등을 일컬었다[10]. 하지만 요즘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다양한 환경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개념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인쇄·전자·웹 등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매체(Information Media)'는 오늘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개념화되고 있는 정보를,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전해주는 일체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11].[1)]

2.2.2. 재난 분야에서 정보매체의 활용

재난 분야에서 정보는 다양한 기관과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대체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과 같이 이동 중 사용이 가능한 매체를 활용한 서비스 형태가 이용자들에게 개발·사용되고 있다[12]. 구체적인 사례로는 긴급재난문자서비스, 생활안전지도, 안전디딤돌 등이 있다.

2.2.2.1. 긴급재난문자서비스

긴급재난문자는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으로 보내는 긴급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2006년부터 재난문자방송서비스(C

1) 다만 중요한 것은 이들 매체를 통해 정보가 전달된다는 점이고, 따라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한 대량의 정보를 불특정다수에게 전달하는 의미에서 대중매체(mass media)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언론학에 있어서는 대량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정보를 전달해주는 도구라는 의미에서 정보매체(information media)라고 하기도 한다.

BS: Cell Broadcasting Service)를 시행했으나, 당시 2세대(2G) 휴대전화의 방식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에 맞춰 개발되었기 때문에 3세대(3G) 휴대전화 가입자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에 '재난안전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여 3G 휴대전화 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됐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부터 출시된 4세대(4G) 휴대폰에는 긴급재난문자방송 수신 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되었다[13].

<표 2> 휴대폰 재난(지진발생 시) 문자방송 표준문안

명칭		표준문안
지진	4G폰	O월 O일 OO: OO OO OO OO OO 00km 지역 규모 O.O 지진 발생 / 낙하물로부터 몸 보호, 진동 멈춘 후 야외 대피하며 여진 주의
	2G폰	O월 O일 OO: OO OO OO OO OO 00km 지역 규모 O.O 지진 발생 / 낙하물 유의, 야외 대피하며 여진 주의
지진해일 주의보		OO일 OO시 OO분 OO지역 지진해일 주의보, 선박은 대피시키고, 해변 주민은 이웃 전파 및 높은 지대로 대피
지진해일 경보		OO일 OO시 OO분 OO지역 지진해일경보, 선박은 대피시키고, 해변 주민은 이웃 전파 및 높은 지대로 대피

2.2.2.2. 생활안전지도

생활안전지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 개개인이 생활주변 위험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들을 통합하여 지도 위에 표현한 것이다. 국가가 보유한 사고안전, 산업안전, 치안안전, 보건안전, 재난안전, 시설안전, 맞춤안전, 교통안전에 관한 필수적인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통합하여 국민이 웹과 모바일을 통해 닥칠 위험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14].

2.2.2.3. 안전디딤돌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와 재난뉴스를 확인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재난안전 대표 어플리케이션인 '안전디딤돌'을 2014년 3월에 구축하였다. 또한 '안전디딤돌'은 'Emergency Ready'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영어와 중국어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15]. 하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은 2014년도에 구축되어 4년이 넘는 시간동안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문 앱에서는 한국어 버전에서 제공하는 재난 경보가 울리지 않는 등,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6].[2)]

3. 연구설계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재난약자 취약계층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매체의 운영실태 등을 기반으로, 좀 더 풍부한 해석과 논의를 하고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도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 대상자 12명을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비확률표집에 해당되는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 방법은 특정현상에 대한 발견과 해석, 서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적 조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방법이다[17][18][19].[3)]

2)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대피소의 주소나 소방서나 관련 기관의 위치를 잘못 안내되고, 긴급안내메시지가 신속하게 작동되지 않는 등 많은 오류가 발생했다. 2017년 3월 기준, 안전디딤돌 앱은 216만 7,138회 다운로드된 반면, 다운로드를 받은 뒤 실제로 핸드폰에 앱을 유지하고 있는 횟수는 32만 7818회로 나타났다. 사용자들 중 7분의 6 이상이 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의미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문앱 'Emergency Ready' 역시 다운로드 횟수는 5,073회인 반면 평균 유지수는 945회에 불과했다.

3) 질적 자료는 현상을 경험해 온 개인으로부터 수집되는데, 질적 자료 수집 시 인터뷰 대상자의 인원 선정 기준에 대해 Polkinghorne(1989)는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는 현상을 경험한 5명에서 25명 사이의 개인들과 인터뷰할 것을 권하였으며, Creswell(2015)은 특별한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대상자를 선택할 때 3명에서 10명의 연구대상을 인터뷰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표 3> 국적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중 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234,809	48,284	38,951	34,692
네 팔	우즈벡	필리핀	미얀마
34,586	33,970	28,653	25,098
태 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 국
25,046	23,676	10,784	9,738
몽 골	파키스탄	키르기즈	캐나다
6,659	3,751	2,751	2,274
영 국	동티모르	일 본	러시아
2,206	1,941	1,150	611

*기타 국적은 18,528명으로 합계는 588,158명이다.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9월호, 2018: 25.

즉, 연구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목적에 적합한 핵심적인 이슈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목적표집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표 4> 연구대상자 정보

번호	출신국	성별	나이	거주기간	교육수준
1	네팔	남	29세	7년	전문대졸업
2	스리랑카	남	28세	7년	고등학교졸업
3	베트남	여	28세	9년	중학교졸업
4	네팔	남	33세	10년	대학교재학
5	베트남	남	30세	7년	전문대졸업
6	베트남	남	33세	10년	전문대졸업
7	베트남	남	31세	7년	전문대졸업
8	베트남	남	32세	7년	고등학교졸업
9	베트남	남	31세	10년	고등학교졸업
10	베트남	남	27세	3년	전문대졸업
11	베트남	남	34세	7년	전문대졸업
12	베트남	남	27세	7년	전문대졸업

3.2. 자료수집

심층인터뷰는 연구대상자들이 국제화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장소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개별적으로 1대 1로 반구조화 형식의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본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정보매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학계 등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예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예비 설문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연구대상자인 외국인이 수행하게 될 설문조사에 있어 언어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간극을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설계를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연구자가 간과할 수 있는 연구문제를 발견하고 질문문항에 대한 방향, 추가의견,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에서의 재난경험 및 인식, 재난정보를 획득하는 매체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인터뷰에 적합하도록 질문 내용의 범위를 조정하고, 질문 내용과 인터뷰 소요시간을 점검하고 수정하였다.

<표 5> 인터뷰 주요내용

분류	주요 내용
한국에서의 재난 경험	재난발생 시 신고 및 도움요청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 때 겪은 문제점이 있는가? (재난안내 문자 같은) 재난안전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TV등 미디어를 통해서 재난방송이나 재난대비 관련정보에 대해 접해본 적이 있는가? 접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떤 점이 이해가 잘 되었고 그렇지 않은 점들은 무엇인가?
한국의 재난 인식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자연재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회재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에서 가장 걱정되는 재난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재난정보 및 컨텐츠	재난대비 관련정보를 원하는가? 그 이유는? 외국인에게도 재난정보가 잘 전달된다고 생각하는가? 인터넷에 재난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직접 검색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땠는지? 재난 및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알고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재난교육	한국에서 재난대응, 안전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관찰, 문서기록 열람 등의 선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인터뷰 등 연구대상자와의 의견교환 과정은 2018년 10월 21일에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약속 시간에 만나서 진행했고, 연구 설문지를 통해 약 2시간 내외로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접 내용은 녹취되었고, 면접 과정 전후에 메모 노트를 통해 세밀하게 기록되었다.

4. 결과 분석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은 남자(11명, 91.6%), 여자(1명, 8.3%)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거주기간은 2년 미만(0명, 0.0%), 3년 이상-7년 미만(1명, 8.3%), 7년 이상-10년 미만(8명, 66.6%), 10년 이상(3명, 25.0%)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1명, 8.3%), 고등학교 졸업(3명, 25.0%), 전문대학교 졸업(7명, 58.3%), 대학교 재학(1명, 8.3%)로 구분하였고, 연령대는 20-25세(0명, 0.0%), 26-30세(6, 50.0%), 31-35세(6명, 50.0%)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의 구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12)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자	11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0
				3년 이상 - 7년 미만	1
	여자	1		7년 이상 - 10년 미만	8
				10년 이상	3
국가	네팔	2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1
				고등학교 졸업	3
	베트남	9		전문대 졸업	7
				4년제 대학교 재학	1
	스리랑카	1		4년제 대학교 졸업	0
			나이	20-25세	0
	기타	0		26-30세	6
				31-35세	6

4.2. 인터뷰 결과

4.2.1. 재난경험

재난경험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경험 여부에 대해 대다수의 대상자가 경험하였다고 응답(11명, 91.6%)하였으나, 재난을 목격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시 신고 또는 도움을 요청한 경험은 없다고 응답(11명, 91.6%)하였다.

"작년에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고...무서웠지만 어떤 상황인지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알려주는 곳도 없었구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랐어요.....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불안했어요"

4.2.2. 재난인식

재난인식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의 재난발생 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재난에 대해 자연재난 중에서는 지진이 8명(66.6%)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풍이 4명(33.3%)으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또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재난은 산업안전사고가 6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화재 3명(25.0%), 교통사고 2명(16.6%), 기타 1명(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많이 발생한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연구대상자들의 근무환경 특성상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한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해서 지진이 발생할까봐 무서워요."

"부산은 지진이 발생하면 산이 많고, 원자력 발전소 등 위험한 곳이 많아서 지진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위험한 상황이 많아 다칠까봐 무서워요."

4.2.3. 재난정보

재난정보 획득 경로와 관련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을 경험하였을 때, 휴대폰이 아닌 TV나 라디오 등 미디어를 통해 재난방송이나 재난대비·대응 정보를 획득한 경험은 거의 전무(1명, 8.3%)하였다. 획득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또한, 한국어로만 전달되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인터넷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은 경험은 TV나 라디오 매체보다는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9명, 75.0%) 대상자들이 경험한 정보는 재난에 대한 단순한 정보였을뿐 대피요령이나 대응방법 등 재난 발생시 안전을 위한 정보는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TV나 라디오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잘 보지 않아요."

"평소에도 그렇고, 무슨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SNS를 통해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평상시, 재난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있다고는 들었지만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재난정보 중 정보전달의 만족과 관련된 응답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들에게도 재난 관련 정보가 잘 전달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는 잘 전달(10명, 83.3%)된다고 응답하였다. 잘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시, 긴급재난문자서비스를 통해 재난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외국어 재난문자서비스 수신 경험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긴급재난문자서비스는 한국어로 전송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난정보의 전달은 잘 되기는 하지만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전달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 안내 문자가 잘 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문자를 자세히 보기 보다는 재난 알림 메시지 소리(경고음)를 통해 무슨 일이 발생했을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내용은 잘 몰라서 자세히 보지는 않아요"

"재난 정보 메시지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 적이 더 많아요"

4.2.4. 재난교육

재난교육과 관련된 응답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재난대응, 안전교육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8명, 66.6%)했고, 재난교육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난교육 미실시 가능성과 실시되었더라도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평소에 재난에 대비하여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12명(100.0%)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즉, 외국인 근로자들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 정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한번씩 안전교육, 재난교육을 실시하는데 한국말로 빨리 이야기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때가 많고, 대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중 보내는 시간이 많은 회사에서 재난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급할 때 어디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4.2.5. 소결

앞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고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4개의 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30개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즉, 심층면접에서 나온 원 자료를 분석하고 코딩한 후, 30개의 개념을 구성하였고 그러한 개념들을 각각 정리하여 8개의 하위범주로 묶고, 그 하위범주를 정리하여 다시 4개의 범주로 묶어서 정리하였다. 그 중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들을 선별하여 2개의 범주와 4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2개의 개념을 구성하여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인터뷰 결과의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산업 안전교육 미비	교육 및 훈련 미비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 미비
재난의 개념인식 미비		
재난정보의 범위인식 미비		
재난 대처방법의 홍보 미비	재난 대처 방법 인식 미비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 미비		
신고 및 도움요청 방법 미인식		
획일적 긴급재난메시지	언어적 측면	정책의 구체성 미비
재난정보의 내용의 질 문제		
불친절한 서비스		
미디어 이용패턴의 이해 부족	정보 취득 경로의 이해	
재난정보 취득 경로의 미비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재난정보와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간 괴리를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표현함

4. 정책적 제언

이 연구는 재난발생시에 내국인과는 달리 재난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적 부자유 등으로 자력으로 신속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한 재난약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에 재난약자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논의, 그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그들에 대한 재난에 대한 이해나 대처방법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12명의 외국인 근로자들과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여 그들이 경험한 재난안전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난의 위험성 등 인식에 대한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즉,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적극성이 부족하다. 인터뷰 분석 결과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대해 답변은 하였지만 그렇게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혹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라는 식의 대답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재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난정보의 직접적 검색 경험에 대해서도 대비, 대응방법이나 대피요령 등에 대한 검색 경험은 없으므로 재난대비를 위한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보의 수용 및 확산방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내국인들의 시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바라보면, 그들이 자주 접하는 미디어, 커뮤니티 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재난시 어떠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며, 그들만의 커뮤니티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의 교환과 교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좁

혀야 한다. 즉, 외국인 근로자들이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알고 싶은 내용으로는 응급상황 시 간단한 응급처치방법(3명, 25.0%),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1명, 8.3%)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다수 대상자들(8명, 66.6%))은 재난에 대한 인식이 낮아,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에서 관련 기관의 노력과 외국인 근로자들 스스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질적인 재난교육의 강화이다. 연구대상자 12명 중 재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직장에서의 안전교육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재난교육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실정이고,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언어수준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지도 미지수이다. 재난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직장 혹은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재난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긴급재난문자서비스의 언어적 다양성이 요구된다. 긴급재난문자서비스는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는 정보가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1] 김도형・라정일・변성수・이재은(2017),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약자 지원방안, 전국재해구호협회.

[2] 장한나(2016), 재난약자의 안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11(2): 1-25.

[3] 부산광역시청 사이트, 2018년 11월 1일 검색; 부산광역시 여성가족 사이트, 2018년 11월 1일 검색.

[4] 법무부(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외부용 통계월보, 2018년 9월호.

[5] 防災白書, 平成3年; 防災白書, 平成30年; 内閣府, 防災情報, 2018년 11월 25일 검색.

[6] 황현락(2012).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국가인권보호 활동의 발전방향: 경찰의 치안대책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12(2): 71-86.

[7] 심기오 외(2010). 재난약자 방재대책 실태조사 및 분석. 서울: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8] 변성수 외(2018). 한국의 재난약자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 미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Crisisonomy, 14(5): 15-34.

[9] 심기오 외(2010). 재난약자 방재대책 실태조사 및 분석. 서울: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10] 이민영(2006). 정보매체의 규제법리에 관한 연구: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형식규제와 규제조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1] 윤영숙(2004). 정보매체의 이미지 표현에 관한 도자 조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2] 이수연・안효범(2015).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재난안전 정보 보호에 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17(7): 97-102.

[13] 기상청 사이트, 2018년 11월 2일 검색.

[14] 생활안전지도 사이트, 2018년 11월 2일 검색.

[15] 행정안전부 사이트, 2018년 11월 1일 검색.

[16] THE KOREA TIMES, 2017년 8월 3일 기사.

[17]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Be very Hills, Calif: Sage.

[18] Polkinghorne, D. E. (1989).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R. S. Valle & S. Hall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Exploring the breadth of human experience (pp. 41-60). New York, NY, US: Plenum Press.

[19] Creswell, J. W. (2015). A concise introduction to mixed methods research. Sage Publications.

〔저자소개〕

구 효 정 (Gu, Hyo Jeong)
2018년 동의대학교 소방학사
現 한국안보정책학회 간사

email : rngywjd0655@hanmail.net

주 성 빈 (Joo, Seong Bhin)
2007년 동의대학교 경찰학학사
2010년 동의대학교 경찰학석사
2015년 동국대학교 경찰학박사
現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조교수

email : tjdqlswn@hanmai.net